

음악과 의술

(기원전 6세기)

피타고라스가 우주의 근본원리는 元素物質이 아니라 數의 科學이며, 數가 우주나 생물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.

각수에 의미를 붙여 즉 1은 神을 나타내고, 2는 物質, 따라서 口는 宇宙이며 4로 나뉘어 떨어져서 3이 되는 것이었다. 또한 피타고라스학파는 音과 音樂의 옥타브의 科學的 이론을 확립하였다.

이 그림을 핀티아스작의 赤色그림 항아리에 그려진 音樂레슨(紀元前6世紀), 음악은 피타고라스 醫術의 一要素이며 지팡이를 짚고 젊은이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도 저기에 있는지도 모른다.

〈뮌헨 국립미술관 소장〉



# 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